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廣田內閣의 財政政策
高橋財政修正은不可避

一

停頓에 停頓을 거듭하야 未曾有의 難産이엇든 廣田內閣이 九日에야 겨우 成立을 告하게되엇스므로 東京事件 勃發以來 兩旬에 亘하야 昏迷狀態속에서 不安과 焦慮裡에 推移되어든 財界도 一旦 安心하는 態度를보이며 底不知의 昏迷狀態로부터 平常에로 復歸하게되엇다。그러나 一旦 平常에 復歸하엿다하더라도 廣田內閣이 어떠한 政策을 遂行하며 馬場財政이 如何한 實體를 展開할는지 아직 明瞭하지못한것만큼 財界에對한 觀測도 區區하거니와 特히 時局이 時局일뿐아니라 이時局을 背景으로 廣田內閣이 成立되기까지에는 軍部其他의 裏面關係가 複雜하야 이裏面關係의諸事情을 考慮할때에는 新內閣이 반듯이 期待된 强力內閣이라고도 할수업슬뿐아니라 新內閣을 牽制할 諸勢力의 存在는 政府今後의 進路에 幾多의 難關을 豫想케하는바 잇서서 新內閣의 動向에 一抹의 不安까지도 抱懷하고 잇는 모양으로 馬場財政의 政策은 一般財界의 關心의 焦點이 되어잇다。

二

最初에 大命이 廣田氏에게 내리고 馬場財政이 出現하다고 發表되어슬때에는 一般 財界는 자못 好感으로서 이를마젓다。그것은 첫재 廣田氏는 外相時代의 經驗으로 보아 政策이 穩健中正할것이라는것과 馬場氏는 財政問題에 造詣기픈 當代의老練家이오 特히 農村諸問題에 通曉한 이임으로서 現財界에急激한 變革과 動搖를 惹起하지안코 高橋前藏相의 健全財政을 좃까지 尊重繼續할것이오 或은 修正이 不可避하더라도 穩健妥當한 修正으로써 進行하리라는 豫想과 待望下에 이를 歡迎한것이엇다。그러나 今回 組閣의 經緯로보아 軍部의 要望은 陸相의 入閣條件이되것만큼 그四大項目의 要望은 新內閣의 政綱이 아니될수 업는바 이軍部要望實現에는 莫大한 經費가 不可避的으로 必要하므로 이는 必然的으로 歲出入의 增大를 招來하는 結果가 될것이며 從來의 財政政策으로써는 이를 料理키 至難할것이다。

三

이를 다시 具體的으로 論하건대 軍部의 要望中『國防의强化充實』과『國民生活의安定』의 二項目의 實現에는 國防費膨脹과 農村施設費의 多額增加가 絶對的으로 要求되는데 이때까지의 所謂 非常時豫算에도 赤字財政으로써 이를 補塡해온 現今의 膨脹의 必至的情勢는 及其也 財政政策의 轉換을 誘致하지안코는 두지 안흘것이다。即 增大되는 歲出에 對한 歲入의 不足을 補塡하기爲해서는 公債增發과 增稅斷行은 當然 避키難한바이니 兵農財三全主義와 公債漸減主義에 依한 健全財政을 唱道해온 所謂 高橋財政은 불[illegible]리가 새로운 積極的方針에로 轉換하리라는것은 疑心업는바이다。

四

馬場藏相은 그處中에서 國債遂行上에 必要한 歲出을 언제까지든지 公債發行에依한 非常時 赤字財政으로 繼續할수는 업스므로 財政計劃을 樹立하야 租稅制度의 根本的改革에 依한 負擔의均衡과 租稅收入增加를 圖謀하고 低金利政策을 併行하야 事業上의 健全한 發達과 國民負擔上의 均衡과 公債政策의 圓滑한 運行을 圖謀하겟다는 意味의 財政政策을 闡明하엿는바 이는 從來의 財政政策의 急激한 變動을 避하기로 財界를 安堵케하려는 努力은 無然하나 高橋財政을 擴張政策 乃至 膨脹政策에로 轉換할수박게 업다는것을 表明한것임은 疑心업다。그러므로 新財政計劃이 樹立要素되지안는限 그內容을 推測키 難하나 그러나 金再禁止以來 至于今 繼續된 高橋財政의 急激한修正에는 多少의 躊躇가 업슬수업고 如何한 計劃에 依하더라도 現下의 情勢로는 增稅와 公債增發은 不可避的인데 增稅와 公債增發이란 政策에 對한 不安도 不安이려니와 그보담도 政治的으로 試驗해보지못한 馬場藏相의 人物에 對한 心理的不安이 加擴하야 馬場財政 乃至 廣田內閣의 財政政策에 對해서는 今後 展開될 財政의 實體와하께 財界는 勿論 一般이 一抹의 不安危懼의 念을 禁치 못하는모양이다。

獨佛關係危機切迫

獨逸出兵에對抗 佛、十萬大軍動員
라인左岸要衝은佛軍이占領
兩空軍隊에待機命令

【巴里十日發電通】 獨逸軍의라인 非武裝地帶侵入이 敢行되자 佛國軍도이에對抗하야 急速히 國境集結을 開始하엿는데 信憑할側에서는 어며 十日까지에 五萬의 세네갈 植民地部隊를 包含한 總數十萬의 佛國兵이 獨逸國境에 移動하엿다고 推算하고잇다 그리고 佛國陸軍省에서는 十日 獨逸國境의 要地全部에 必要한 人員의 配置를 完了하엿다고 發表하엿다

【벨포올九日發同盟】 獨逸軍의 라인란드進入에 對抗하야 佛國參謀本部는 所謂『安全保障計畫』에 基하야 國境線一帶의 駐屯軍에 對하야 急遽 出動을 命하엿는데 右計畫의 範圍에 屬한 멧츠、시옹크릴에히낙、루시일롱、산레에드、벨호ー드等 各地駐屯軍은 七日夜來 國境線으로 向하야 물밀듯 出動을 開始하야 國境線에 至하는 國道는 出動部隊가 連續不絶하는 形便이다 이미 國境線上의 要衝地帶에 出動하라고 命令바든 部隊는 五萬、라인左岸地區의 要衝은 完全히 佛軍의 占領에 歸하엿다고 傳한다 佛國參謀本部의『安全保障計畫』에 依하면 今後 數日間에 十萬部隊를 要衝地帶에 集結하야 國境線을 守備할것으로 보이는데 一方 멧츠、낭시兩空軍根據地에서는 二十四時間 警戒勤務를 開始하야 獨逸空軍의 來襲에 備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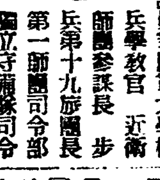
【낭시『佛國』十日發電通】 當地常駐의 佛國兵五千名은 九日夜 出動을 開始하야 獨佛國境에 移動中이다 獨 … 出을 開始하는者가 不少하다 九日 스트라스브울駐屯二個聯隊는 다시 獨佛國境방스市에 向하야 進軍을 開始하엿는대 에리크將軍은 國境方面의 各要塞는 이에 後備를 完了하엿고 이以上人員 補强의 必要는업다』고말하엿다

트럭、택시徵發
國境要塞準備完了
알사스로ー렌首都에戰時氣分

【스트라스불九日發同盟】 알사스로ー렌의 首都 스트라스부울全市는 獨逸軍侵入에 備하야 벌서 戰時氣分에 싸혀 스트라스브울衛戍司令官 에리크將軍은 九日 市內 트럭·택시ー營業者에對하야 戰時自動車 徵發令을 發하엿스나 [illegible] 着도 되기前에 各要塞는 戰時編成의 强力部隊로 充溢될뿐이다 附近農民도 이미 戰時服務를 맛고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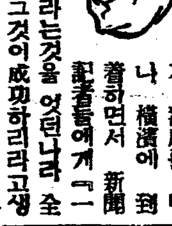
廣田新內閣 成立記念撮影 (航空便)

新內閣閣僚의 人物과그經歷 (二)



寺內壽一 (陸軍大臣) 氏

故寺內正毅伯의長男으로 明治十二年 東京에서 나서 大正八年에 襲爵햇다 明治三十二年 陸軍士官學校를卒業하고 累進하야 大將에昇하얏다 그동안 陸軍大學을 卒業하고 參謀本部員兼陸軍大學校兵學敎官 近衛師團參謀長 步兵第十九旅團長 第一師團司令部附 第一師團參謀長 朝鮮軍參謀長 第四師團長 臺灣軍司令官 獨立守備隊司令官을 거처 昨年十二月에는 拔擢되야 軍事參議官이되얏스며 일즉 明治四十五年에는 獨逸에 派遣되얏든일이잇섯다 寬顔大將이라는別名을 가지고잇는 스니만치 氏는 明朗한將軍으로 通한다 이번의廣田內閣成立與否가 오직 寺內大將에게 달렷든것 가티보엿다 實은 寺內個人이 아니고 軍部全體의意思이엿든것을 생각하면 陸軍大臣으로서의 寺內의 取할길도 짐작할수잇는일이다 軍部의 新內閣에 要望한四大政綱도 寺內氏를 通하야 發表되지안헛든가? 廣田內閣이 寺內大將의 『혼림지풀』에 依하야 움직일지 엇질지는 두고보아야알일이라는 것은 懷疑的政治觀을 가진사람의觀測이다



永野修身 (海軍大將) 氏

豪放磊落、一見泛漠하고 무뚝뚝하기가 無言의岩石과 가티 보이나 一旦重大事件을 當하면 그表情과는反對로 똑똑하고 條理잇게處斷하고 그妻德와가티 措之不動하는이가 이번廣田內閣에 海軍大臣으로 入閣한 永野修身海軍大將이다 氏가 일즉 壽府國際聯盟軍縮會議에 海軍側全權으로 出席하야 大氣焰을 吐하든것은 아직도 記憶에 새롭거니와 氏가 會議를 斷念하고 남먼저 壽府를 떠나 橫濱에 到着하면서 新聞記者들에게 『一般軍縮會議라는것을 엇던나라 全權이든지 그것이成功하리라고생각하는사람은업다 모다 하루밧비 閉會해버리라고한다 다만閉會할口實을 생각하고잇슬뿐이다』 率直하고도 磊落잇는 濃國第一聲이엇다 氏는明治十三年高知縣에서 士族으로태여 나서 同三十三年에 海軍兵學校를 卒業하고 昭和九年에 大將에昇任햇다 그동안 陸軍大學을 卒業하고 米國駐在、日進、勢手의各副長、海軍省人事局第一課長、平戶艦長、米國大使館附武官을 歷任하고 華府會議에는 全權委員의隨員으로갓다가 歸來 海軍軍令部參謀兼海軍艦政本部技術會議議員 第三艦隊司令官 海軍兵學校長、海軍軍令部次長同出仕를거처 昭和八年에는 橫須賀鎭守府司令長官兼海軍長官會議員、同年의 特別大演習때에는 第四艦隊司令長官이엿스며 壽府一般軍縮에 全權委員으로갓든것도 이해다 昨年末에 다시 倫敦에서開催된 海軍軍縮會議에 全權으로出席하얏다가 歸途列車가운데서 入閣의交涉을 바든幸運兒다

潮惠之輔 (內務兼文部大臣) 氏

明治十四年 島根縣出生이다 頑强한 政黨排斥論者로서 往年의 政黨政治全盛時代에도 不偏不黨이랄까 어느便에도 치우치지안흔사람이다 超政黨乃至 政黨無視時代의 宰相으로는 그럴만하거니와 이點으로보아서 이번 政黨萬能論者 商工大臣 川崎卓吉氏와 한內閣에 잇서서 好一對라 할것이다 氏는 明治四十年에 東京帝大法科를 卒業하고 곳內務省으로 들어가서 이때것 孜孜不休의 事務家로 지내왓드니만큼 內務行政에는 第一人者라고한다 昭和三年五月 田中內閣時代에 內務次官으로 就任해가지고 若槻內閣때인 昭和六年 八月까지繼續해잇섯다。그가 內務方面에잇는 關係인지는 몰나도 그러케人氣의人物은 아니여서 將來를 囑望하는 政治家로서의 潮를認定한 人物評論家는 업는모양이다 그야 評論家의觀察이 不足햇는지도 몰은다。이번文部大臣兼任은 조금치안흔것갓다。適任者가나기前까지의 代理役이리라는것이 一般의推測이다

抗日第一目標의 山西싸베트政府
打倒蔣介石絕叫!

【北平十日發電通】 山西省에 侵入한 共產軍은 中央西部地帶八縣에 亘하야 이미 共產制를 實施하고 中陽에 싸베트政府를設立하야 永久的山西싸베트建設에着手하고 또 綏遠 寧夏 外蒙에의 國際路建設을 企圖中인데 彼等의 宣傳工作은 從來와 달라 抗日을第一目標에다두고 다음 日本과 妥協하는 蔣介石 閻錫山打倒를 絕叫하고잇는것은 注目할만한다

히總統
國際情勢推移靜觀

【伯林九日發同盟】 로카르노體制爆擊의 手段을 敢行한以來 四十八時間 全國民의 熱狂裡에 히틀러總統은 월헤름街의 官邸에 들어안저 國際情勢의 推移를靜觀中인데 이미 라인再軍備를 完了하고 世界大戰에 由來잇는 屈辱的地位를 淸算한以上 끗까지 自重하고 부질업시 大軍을 國境方面에 出動하야 國境紛爭을 助長함과 如한것은 極力回避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다 히틀러總統은 東西兩國境의 不可侵條約 其他今回의 現實的提案에 對해서는 各國政府가 모다 相當한 支持를 與할것으로 期待하고 佛國政府의 强硬策도結局緩和될것으로 期待하고잇스므로 聯盟理事會에 代表를 派遣할는지 그與否는 決定되지안헛다

伊戰鬪行爲中止는 歐洲政勢에對備次

【倫敦九日發同盟】 伊太利遠征軍總司令官바도리오將軍이 全線各部隊에 對하야 一齊히 戰鬪行爲即時停止를 命한것은 和平勸告案受諾의 結果라고는 하나 伊太利政府 平素의 强硬方針에 比추어 多少意外의 感으로써 보고잇는데 英國政府의 消息으로는 獨逸政府의 라인共同保障條約破棄를 契機로 歐洲의 情勢逼迫을 告하게되는 結果 伊太利政府는 特히 國軍의 不足을 感하고 遠征軍中의 一部의 本國撤歸計畫準備가 아닌가고 보고잇다

英外相쥬네브向發

【倫敦九日發電通】 이든英外相은 九日午後四時半發 汽車로 倫敦을 發하야 巴里經由 쥬네브에 向하엿다 佛國政府當局과 協議한 後 聯盟理事會及 로카르노條約國會議에 臨할豫定이다

戰車大砲等續續 獨軍『라인』에集結
『佛白聯合軍쯤은問題업다』
侵入部隊幹部豪語

【켈른九日發同盟】 九日夜 까지에 라인란드의 非武裝地帶에 侵入한 獨逸國軍의 精銳總數는 無慮 三萬이라는대 同地方住民의 歡迎에 士氣가 등등하다 部隊幹部는 佛、白聯合軍의 共同攻擊等은 問題업다고 豪語한다 侵入部隊의 攻擊武器는 主로 戰車隊 山砲等에 集中되여 잇는대 一部에서는 이미 夜陰을乘하야 要塞攻擊用의 重砲도 라인一帶에 配備되엿다는대 인제 國境線一帶는 暗澹한 戰雲에 싸이게 되엿다

루마니아國防評議會

【부카레스트九日發同盟】 羅馬尼亞政府는 九日 카로르二世臨御下에 首相타타레스코氏陸相앙게레스코將軍以下 各閣僚出席 大國防評議會를 開催하엿다 會議는 專혀 獨逸政府의 라인란드武裝에 依하야 釀成된 獨佛關係險惡化에 備할 國防强化案을 中心으로 審議를 遂하야 앙게레스코陸相은 新國防計畫을 報告說明하엿다

卒業生을생각하고 (八)
李光洙

學校敎育이나 또는 知識이나 言辯이나 手腕이나 어려한것이 勿論 重要하지마는 그것은 [illegible]요 主가아니다。學識、言辯、手腕에 價値가 잇다는것보담은 그것을 누가 어떠한 사람이 가젓나? 하는데서 비로소 價値가 生하는것이다。大學同期生으로서 十年이나 二十年을 지난後에 各各 그일우어노흔바 業績을 考査하면千差萬別이 잇스려니와 그大小、高低의差는 或時幸運에 돌릴듯십흔것도 업지아니하지마는 이것은 皮相의 見解요 畢竟은 人格修鍊의 程度에 依하야 갈리는것이다。利害와 苦樂에 흔들리지아니하는 信義와 勇氣、直心과誠心으로 一貫하는 줏대가 잇고 업고에 依하야서 갈리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世上에 나설 때에 먼저 反省할것은 제人格이다。제가 果然直心、誠心을 가진 사람인가、제가 果然利害와 苦樂에 옴지기지 아니하고 狂濤怒濤를 거더차고 千古에 우뚝 섯는 바위와 가튼 줏대를 가진 사람인가。만일 이것이 업다 하면 그는 順風이 잇는 동안、波濤가 아니 이는 동안 滄海에 떠나간다 하더라도 一旦 逆境에 드는 때에 고만 敗北沈淪하고 말것을 豫期할수박게 업는것이다。이것은 商業을 하거나 農業을 하거나 무슨 職業에 나아가거나 그러하거니와 特히 民衆을 爲하야 民衆으로 떨쳐러 事業을 하라는者에잇서서 매옥 그러한것이다。

우리 朝鮮人은 現在에 잇서서는 民族的으로 信用이 墮落하야 그 極에 達하엿다고 할만하게되엇다。一步異民族中에 발을 들여노흔 일이 잇는이면 어떠케 우리 朝鮮人의 信用이 말이아니게된것을 痛感할것이다。거지뭇장이、挾雜軍、남의 돈지고 잘라먹는 사람、제利害만 생각하고 남의 생각 할줄 모르는 백성으로 字數가 나서 지실로 信用엇는 個人으로도 信用을맛기가 어렵게되엇다。朝鮮人이 이 民族的信用을 恢復하지못하는限 朝鮮人은 更生하지못할것이다。

何必 異民族間에서라? 우리끼리도 우리 서로보다는 남을 더 信賴하리마콤 우리끼리의 信用도 墮落이 되엇다。이 同族間의 信賴心의 墮落은 모든 社會活動을 阻害하는 最大한 原因이 되는것이다。그럼으로 朝鮮人 우리끼리의 信用恢復이 政治、經濟、文化할것업시 모든 民族活動의 基本要件이 되는것이다。그러면 民族的信用은 어듸서 나오나? 그것은 信用엇는 個人의 增加에서박게 차줄길이 업는것이다。(未完)

時事漫畫

다 질머지겟다고 장담하고 맛기는 마라두엇지마 이런섯것 가지든 안흐니

英外相演說에 佛紙絶望的論調

【巴里十日發電通】 이든英外相의 演說은 十日佛國諸新聞에서 對獨方針演說에 絶望的 批評을 示하엿다 그리고 佛政府는 英外相 이 獨逸의 聯盟復歸를 容認하려함에 對하야 予先 獨逸의 國際條約에 對한 忠實性을 確知하지안코는 同意할수업다고 反對意見을 表明하고 또 이든外相이 獨逸의 制裁適用을 躊躇하는以上 佛國으로서도 伊太利의 制裁適用等 拘束될것이 아니라고 率直히 述하엿다

新內閣政綱政策 十三日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 未曾有의 非常時局을 打開하고저 成立된廣田內閣은 躍進日本에 適應適切한政策을 斷行하려는 重大決意를하야 그政策政綱의 具體的審議를 進行中이다 即十日의 閣議에서 廣田首相은 現內閣의 政綱政策은 速히 決定할必要가잇기때문에 十一日의 臨時閣議에서 協議하야 十三日의 定例閣議에서 決定發表할 方針이란 旨를 述하고 各閣僚間에 隔意업는 意見交換을 行하엿는데 廣田內閣의 政策은 끗까지 躍進日本에 適應한 革新的政策으로하야 決定發表한다음에는 끗까지 勇斷할 必要가잇다는데 意見이 一致되어 十一日의 樞密院本會議散會後 臨時會議를 開하고 審議하야 十三日의 閣議에서 正式決定하야中外에宣明하기로되엇다

三月一日 米穀現在高

【東京電話同盟】 農林省發表 三月一日 米穀現在高北海道外十四地方分은 如左하다

日本內地米	一二、六一九、七六〇
朝鮮米	八〇、三八一
臺灣米	三六、八七八
外國米	一三、一二〇
合計	一二、七五〇、一三九
前年同期에 比해	五五七、七〇五

石減少

夕刊後市況 十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八〇〇	(千)
鐘新	一四四〇〇	(一二〇〇低)
日產	六八五〇	(五〇低)
東新	一三六三〇	(五〇〇低)

名古屋期米 後止 三二、五二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一一〇〇 先限 六九二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二五〇 先限 五三二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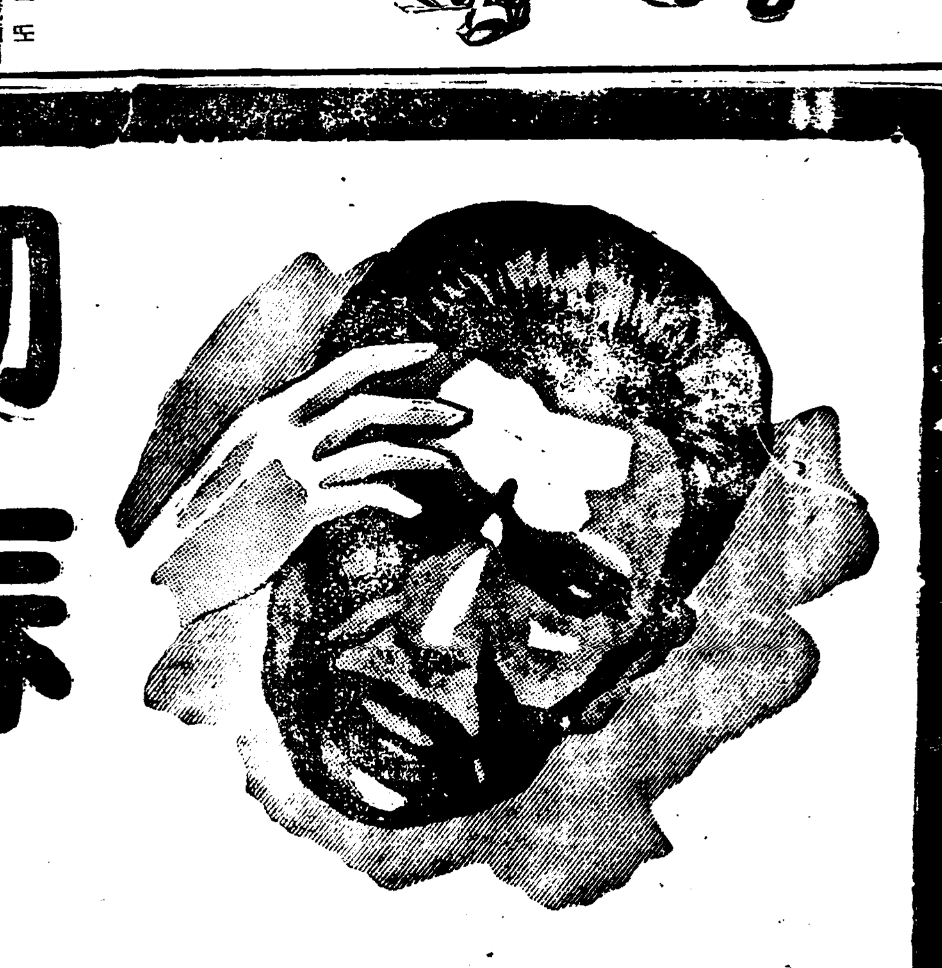
今治水

송곳으로쑤시는듯한압흔齒痛에 곳鎭定되는感謝喜悅
齒痛에는………
무엇무엇해도今治水
主治 [illegible] 上氣 된 齒痛이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全國藥店にあり

健腦丸 (건뇌환)

健腦丸의 綜合效果
健腦丸은 一劑라도血循을바로잡고、亢奮을鎭定하야自然히安眠과便通을快하게하야서速히腦의疲勞를除去하고病源的으로頭痛、眩氣、不眠、上氣等을一掃하야서腦神經의作用을昂進케하며頭腦를明快하게記憶力을增進케합니다。
近代人의頭腦保全藥!
主效 頭痛、上氣、耳鳴 不眠、眩氣、便秘 憂鬱、허소대리 健忘、中風、卒倒
定價 五十錢 一圓까지 各地藥店에잇슴

初春의 上氣 不眠 頭重 憂鬱
몬저 原因을除去!
血行의不調로부터 일어나는腦神經病에 頭痛藥을濫用하도록 對症用의 一時的抑壓에不過합니다。
于先血行을整齊하며安眠과通便에依하야原因을除去식히는絶對必要올시다



發賣元 大阪 丹平商會藥房

"大氣는 香氣롭다。우리들은 젊다"

東京事變關係者 百五十餘名檢擧
憲兵隊와警視廳聯合活動

【東京電話同盟】三月十日 午後九時 三十分 戒嚴司令部發表‖ 이번 동경사건에 관련한 북일휘(北一輝) 서전세(西田稅) 중촌의명(中村義明) 살마웅지(薩摩雄次) 구천철야(龜川哲也) 복정항(福井幸)등 백오십수명은 동경헌병대와및 경시청에 검거혹은 검속되야 방금 취조를 밧는중이다

一人一日의生活費가 拾錢에서도 四厘不足
그들이提供한最低生活費記錄
京城土幕民生活實狀

『거리의 정서-』토막민(土幕民)문제는 이미십일년간에 보도된바이나 이제그들의 실제생활 내용을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 조사한것을보면 제일쯧조약하다고 하는 신당리(新堂里)부근 토막민이 하로한사람생활비가 겨우 십삼전삼리사모 안암리(安岩里) 부근토막민은 십전 청량리(淸凉里) 부근이 십일전칠리칠모 돈암리(敦岩里) 부근이 구전칠리 동묘(東廟) 방면은 륙전사모 동소문(東小門) 방면이 사전이라 며칠매인당 일일생활비가 구전륙리칠모라는데 그들은 피연 동물적수준(動物的水準)이하의 생활상태를 지속하는 형편이데 수입의전부는 식량대(食糧代)가 점령하고잇슴은 물론이며 이것은 그래도 근처에 일터를가진 토막민들의 생활내용이며 더욱그들중에서는 상층에 속하사람들의 생활정도이라 하니 이만명을 넘는다는 일반 토막민의 생활상태야 문자그대로 아사적생존(餓死的生存)이라 할수잇다 의주비목(衣住費目)이 업는그들에게는 현재토막(土幕)은유일한 로동력보급소(勞働力補給所)인데 이제부당국에서 고안중이라는 집단부락(集團部落) 계획은 단지 그들에게 토막기지를 제공하고 건축재료비(建築材料費)를 노력비는 각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니 과연 그들의 실상에 맛는 대책이라할 수 잇슬가 이제 동대문서내의 이천칠백 삼십이호에 겨우일백사십일호 만이 집단부락 으로 이전할수잇다하니 가히부당국대책의 실제효과를 평가할수잇스며 토막민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전기와가튼 미오한 방법으로는 도저히희망 할수업스며 오로지 과단한 사회정책적 대책의강구가업시는 이문제 해결의 서망은 아직도멀다하리라한다

大邱大明山公園化
小野府議員이府에寄附

【大邱電話】대구부(大邱府)는역사적승지로서 경주(慶州)와 웅장(雄壯)한 경치로 유명한가야산계곡(伽倻山溪谷)해인사(海印寺)를가진가운데 두어서 차저오는 관광객(觀光客)이 상당히만호나 대구 시내에는 이손님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할시설(施設)이업는것을 일반시민(市民)은유감으로생각하고잇든지음 소야(小野)부회의원은 대구번영책으로 근교(近郊)인 대명산(大明山)의지이전부인 백칠십오정보를 매수하고 이것을대구부에기부하야 공원(公園)을 만들기를자원(自願)하엿다 이대명산은 신종합운동장(新綜合運動場)에갓가운 언덕(丘陵)으로서 경승지(景勝地)를포루링는에 갓가운 경승지(景勝地)로 공원으로는 가장조흔입으로 부(府)에서는이자원을 수리(受理)하기로하고 장차여긔에다 각착시설을 가하야대공원을 만들작정이라한다

無敵、無言의窃盜
警察署에侵入하엿다가被逮
알고보니厥者는벙어리

시외 신당리(新堂里)일백사십사번지 홍모(洪某)(三一)는 생래의벙어리인데 팔일날정서내에서 외투를 가지고 다라난 것을 작일 붓드러 취조중인데 그의안해 박모(朴某)도 벙어리인데 십일아츰 막 형사실(刑事室)에 뛰여들어오며 남편을 부르고 손과입으로 흉내를 내면서 대성통곡하야 취조하는 경관으로 어찌할줄을 몰랏다한다

接客業者健康團束

시내룡산서(龍山署)에서는 요지음 날세가고르지못함에짜러 각종소화기계통의 전염병 발생이 현저하게 느러감에비추어 관내 각음식점, 려관가튼 접객업자 천여명에대하여 아호렛동안 압흐로 열흘동안 매일배명가량식 채변(採便)검사와아울러 건강진단을하리라한다

길일흔아히

흡시경 시내마포동(麻浦洞)삼번지박모(朴某)의 집압해 약일곱살먹은어린아히가 집을찻지못하야 울고잇는것을 그집주인이 보고

도적질을잘못한다고 同僚를殺害遺棄
少年窃盜團을取調하든中에
戰慄할團長의私刑事實發覺

대경서의 팔뚝인 경성역(京城驛)을 무대로삼고활약하든구두전문절도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제 그들을 취조중에 또박게도돌라온『리지』(利刑)사건이 발각되엿다 즉그들중 단장인 리명순(李明順)(二一)은작년 십이월경에 단원의 한사람인 속칭『간찌』라는 열네살먹은 어린아히가 출서토려서절도성적이불양타고하야 교외어느산중에서 엄중한 경계하에 그어린아히를곤봉으로 타살하야 즉시케하고시체는 그곳에 무더버리엿다는듯기에도 무서운사실이 여죄로발각되엿스므로 그서에서 감작놀라서 더욱다른 죄상을추궁중이다

寢室엿보는怪漢

【仁川】근일 인천시내에는 변태적지한 이 횡행하야 부녀자들이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라는대 이제 그 자세한것을 조사하건대 신화수리(新花水里)근방에는 저녁열한시경이면 들창문을 돌코 드려다볼뿐만아니라 돌파출물을 갓혼것을 끼엇지여 자든부녀자들을 놀나게하는 괴한이잇다한다 이에소관 인천서 보안계에서는 전시를동하야 엄중수색중이라한다

老妻가轢死

지난 십칠일 오후네시 호남선(湖南線)신흥리 장성(新興里長城)사이 대전(大田)기점 백칠십익키로누백 미돌부근에서 장성군서삼면 송현리(長城郡西三面松峴里) 박공팔(朴公八)의어머니 윤씨(尹氏)가 대전을떠나 목포(木浦)로 가는 제삼백칠호 렬차에 갈리여 무참하게도 즉사하엿다한다

絶壁에서 墜落自殺

팔일 오전열시경에 시내현저동(峴底洞) 뒤에잇는 안악산(鞍岳山)꼭대기 오백척높되는 절벽에서 어떤 청년한명이 떠러저 죽어잇는것을 등산자가 발견하고 소관 서대문서에 보고하여와서 그서에서 조사한 결과 죽은사람은 시외독도리(纛島里)사는 안점성(安點成)(二七)으로서 극도의 신경쇠약에 들어 닷새전에 집을나와서 헤매다가 그와가리 절벽에서 떠러저자살한것이판명되엿다

上京中警部車中發狂

평북녕변(寧邊)경찰서에 근무하는 로정순(盧正淳)경부는 경무국의 주최인 경찰관부강습회에 출석코저 떨임에 상경하는차중에서 돌연발광하야 시내청량리(淸凉里)에잇는 원(原)정신병원에 수용하야 치료식히고잇다

春曙哀話
차디찬벼개머리에 親母를付託하는遺書
쪼개질수업는사랑의懊惱를 少妾、죽엄으로써超越

나날이 지터가는 봄빗을 등지고 약을 먹고 자살을 피하다가 뚝대로 안되매 식도로 목을 질러 비참한 최후를 마춘 젊은 녀자가 잇다 부내 관수동(觀水洞)『히가리·아파-트』에 방을 빌여 가지고 그애인과하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잇는 모카페녀급 //사유리//라고 부르는 문경자(文景子)(二二)(假名)은 구일밤에 자긔방에서 아비산을 마신후에 칼로 경동맥을 질러 이십일세를 일긔로 꼿다운 청춘을 저바리고 차디찬 시체로 되여 잇든것을 십팔일 오전 열한시쯤하야 딸을 보려왓든 부내 관철동(貫鐵洞) 어느부자집에서 침모노릇을 하고잇든 그의홀어머니 리씨(李氏)가발견하고 곳소관종로경찰서에 보고하야 그서에서는 곳계원이현장에 출동하야시체를 검시한후 그의가족에게시체를 인도하엿다한다

그가 이가티비참한최후를 짓고 말리면에는 자못복잡한사정이만흘러이지마는 그가이미 차디찬 시체가되야 말이업스니 자세한 바는 알기어려우나 그는금년정초부터 부내홍파동(紅把洞)에사는 약제사(藥劑師)조수 김종록(金鍾祿)(三一)(假名)과사랑을속삭이여 전긔『히가리·아파트』에 보금자리를맷고달콤한녀관방을보내오든중 얼마가못되여 그들의 사랑의할론아페는 암조가 닥쳐왓다 김종록은 안해엿슨 사나히로서 그안해와 어머니는 게이날마다 그들의 보금자리를 차저와서 남의남편을 웨뺏는냐는 둥 남의 자식을 웨버려주는냐는등 별별 악담을 다하야 못견대게구럿다고 한다 그가 죽는날 나제도 김종록의 어머니가 차저와서 가진욕설을 하고갓는데 그는그만 쓰라린사랑의 마로다기를 너무려다가 날카로워지는마음에 죽엄으로써 뜻대로되지안는 사랑을 청산하여버리려고 드되여 목을 드린 그의정든애인에게 『우리어머니는 불상한녀자이니 내가죽더라도 그를 돌보아주시오 나는당신을참마음으로 사랑하엿지마는 이세상에는 모든것이 마음대로 안됩니다 나는먼저갑니다』하는유서와 그의어머니에게 먼저 죽는다는 유서한통을써노코 전긔한바와가티 음력십륙일밤 기우려지는 달빗아레에서 약을 만히마신다음 칼로목을찔러 죽은것이라고한다

中等校合格者

京師講習所

韓洪敎 咸南 韓德泳 京畿
韓金鎬 平北 吉龍水 平北
金奎吉 咸南 金基鐵 忠南
金甲基 忠北 金俊煥 平北
金貞瀧 平南 金容祺 江原
嚴乙華 全北 玄丙龍 平北
崔鳳斗 全南 崔丙權 咸北
崔壬淳 江原 全甲洙 忠南
全錫文 京畿 全治孝 咸南
丁九鎭 京畿 鄭用鈍 忠北
趙漢旋 京畿 趙西宇 忠南
南昌鉉 京畿 朴勝夏 江原
朴準澤 忠南 朴台淳 忠北
朴炳均 京畿 李漢復 京畿
李元鎔 忠南 李鍋滚 咸南
李壽鵬 京畿 李濟澤 江原
李東奎 黃海 柳右鉉 忠南
林仲善 忠南

進明女高

鄭[illegible] 南仁[illegible] 南宮[illegible] 朴[illegible]
白姬洙 許淳 黃[illegible]子 朴淑[illegible]
張[illegible] [illegible]明子 [illegible] 劉[illegible]
朴音天 趙[illegible] 金[illegible] 邊[illegible]
崔[illegible] 白[illegible] 宋[illegible] 元玉[illegible]
石貫貞 李[illegible]洙 [illegible] 李[illegible]
李[illegible]林 李弘[illegible] 金[illegible] 李英仙
趙官相 崔泳淑 劉玉圭 金[illegible]
尹成淑 許淑 金[illegible] 朴[illegible]玉
尹柔順 劉永[illegible] 尹相[illegible] 鄭[illegible]
李順女 崔[illegible] 金[illegible] 閔[illegible]基
金貞[illegible] 金佳枝 [illegible] 金貞善
張淑[illegible] 朴[illegible]淑 崔永淑 高丙淑
申玉秀 尹玉分 李相[illegible] 黃[illegible]淑
崔英子 許庚蓮 李[illegible] 趙[illegible]行
黃圭成 金德[illegible] 金松[illegible] 李淑子
趙[illegible]順 李花珠 李順吉 李[illegible]
申花蓮 崔明善 張晶玉 宋淑子
安順吉 元順泰 盧永九 金蓮信
鄭[illegible]柱 李青子 成[illegible] 李春子
尹在珍 李[illegible] 權貴合 安晉出
崔[illegible] 孫戶妍 金玉順 崔明子
李玉良 李貞淑 崔三德 柳芳烈
朴[illegible]子 梁[illegible]玉 李季月 權今龍
金貴淑 石鐵玉 邊[illegible]淑 鄭恩重
朴炳善 朴貴女 李淑姿 高辛慶
金玉姬 金寅順 鄭民好 李淑賢

仁川赤勞被告에
懲役三年—一年半求刑

십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개정된 인천적색로동조합(仁川赤勞)사건 공판은 날이저물기까지 계속하야 피고일동에대한 심리를 끗내엇는데 피고들은 대체로 사실을 부인하엿다 향천(香川)검사는 피고전부에게 징역일년륙개월내지 징역삼년의 구형을하엿다 판결은 오는십칠일에 언도하기로 되엿다

▲朴永先 三年
▲田甫鉉 二年半
▲韓昌壽 許次吉 南宮璜 各二年
▲韓秉烈 金煥玉 各一年半

원래 이사건의피고는 여덟명이엿는데 수모자 김근배(金根培)(二七)는 예심에서 신병으로 말미암아 보석되여잇다가 얼마전에 그의고향인 장연(長淵)에서드디여 죽어버렷다한다

米國學生室內陸上

【紐育七日發同盟】一九三六年度米國學生室內陸上選手權大會는 六日밤매리손·스퀘어·가-덴에서擧行되바『마콰탄大學』이 廿六點으로 優勝하고 第二位는『에일大學』, 第三位는『하-버-드』大學이다

今日의運動

▲럭비-리-그第六日(鐵道局對京城商業) 午後四時半 龍山新球場

올림픽蹴球候補에 朝鮮人은겨우二名
代表選手十七名은四月에決定

【東京電話電通】今夏로 追迫한 第十一回올림픽大會 蹴球代表팀의 銓衡에 關하야서는 日本蹴球協會에서 昨年六月부터 九回에亘하는 銓衡을 거듭하야 오다가 九日午後六時半부터 協會事務所에서 理事會를 열고 銓衡委員會에서 決定한 第一次候補二十五名을 正式으로 承認한 다음 合宿方法 其他를 決定한 後 十日午後三時에 다음과가튼 發表가잇섯다 그리고 第一次合宿을 마치고 第一次候補 二十五名中에서 十七名의 代表選手를 選拔하야 役員三名을 加入한二十名을 派遣하기로 決定하엿다

◇FW(十名)‖金永根(普專) 加茂(早大) 西邑(早大) 川本(早大) 加茂(早大) 松永(文理大) 右近(慶大) 播磨(慶大) 市橋(慶大OB) 高橋(東大)
◇HB(九名)‖金容植(普專) 立原(早大) 關野(早大) 種田(東大) 石川(慶大) 笹野(早大) 吉田(早大) 小橋(神戶高商) 高山(東大OB)
◇FB(三名)‖鈴木(早大) 堀江(早大) 竹內(早大)
◇GK(三名) 佐野(早大) 不破(早大) 上吉川(關大)
◇第一次合宿‖三月二十五日로부터 三週間東伏見早大球場
◇第二次合宿‖四月二十一日로부터 五月十日까지 法政新球場 日吉、大球場、又는動銀球場
◇第三次合宿‖六月十日로부터二十日까지動銀球場
◇役員‖總監督鈴木重義 코-취 工藤孝一『마네-저』未定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합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社會意義잇는大事業紹介 第一 第二 株式會社

모루히네 福모나-루의特徵 一、効力이迅速하고禁斷症狀의苦痛을緩解 一、하고도安靜을回數와量을顯著히激減식힌다 모나-루 MONALFUKU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田邊五兵衛商店

◎清導補腎丸◎ 性器強大靈藥 中國瑞康士大醫生四十年研究大名藥 ◎藥効◎ 男子性器强大、陽萎、早漏、遺精、夢遺、精欲缺乏、發育不全等 振替京城二四六一二番 東亞公司 (說明書進呈)

부인병 자궁병에 조혈정 振替京城二三六四番 日光製藥社

眞正한 補材藥 通信服藥家에福音 漢南藥局 主 李道鉉 (特허百日咳神藥도有함) 京畿道廣州郡都尺面老谷市

特別廉價 大賣出 瑞西製 先金이라 上海眞成洋行代理店 電話一七四六番

明治大學女子部 東京神田區猿樂町

自轉車問屋直賣 信用重視 特典付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ノ六 日英商店

三一洋行時計部 破天荒的廉價提供 新義州初音町二番地

림 네오치리지 ネオチリン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平壤誌 張道斌先生著 美洋裝 全一冊 定價三圓 平壤府慶上里二〇 平壤商工社 振替京城一三〇二番

皮膚 チヤージ 챠-지 ◉指間무좀、股間습증 ◉顏、手足거츠름에 東京神田花房町 山壽帝國堂

小兒良藥 母性愛의 樋屋奇應丸 本家 大阪天滿 樋屋合資會社

三月號

이 內容! 이 豪華版!

人氣! 人氣! 大好評!

讀書界의 完全制覇!!

定價 十錢

中国紅軍西遷秘話

毛澤東主力部隊의 陝西進軍裡面哀話

千眼居士

軍縮會議決裂과 今後의 世界

軍縮會議의 決裂은 事實이오고야 마럿다. 따러서 今後는 公然한 軍備競爭의 時代로 도라가게 되나니 그 結果는 果然 무엇을 齎來할 것인가?

徐椿

戰爭과 景氣

戰爭은 好景氣를 招來한다고! 그러나! 戰爭은 果然 好景氣를 가저오는가? 그에 對한 이 科學的 把握을 읽으라!!

裵成龍

銀價暴落과 中国의 將來

全中國의 苦悶은 帝國主義의 苦憫에 어나 銀의 苦憫은 中國의 苦憫이다 본 中國의 이 苦憫을

高永煥

蔣介石論

全中國四億萬民衆의 命運을 한손에 쥐고 風火口가튼 極東政局의 危機에서 있는 蔣은 어떤사람인가?

李圭鳳

文士優遇論

一流行歌手로도 한달에 돈 百圓은 어렵지안케 벗거던 完全한 文學을 爲하야 文士를 優待할 必要가 잇다

金海鎭

우리가 要求하는 人物 辛泰嶽 金海鎭

우리손으로된 最新發明品概說 金容瓘

꼿빠이 칼네ㅣ지 市內各男子專門, 女子專門의 名物篇

콩트 慈善 金林湖

卒業諸君을 보내면서

延專副校長 俞億兼

世專校長 吳兢善

中央高普校長 玄相允

梨專副校長 金活蘭

京城女商校長 劉銓

中央保育校長 任永信

中央佛專學監 金敬注

梨花女高教監 金昶濟

第二世界戰爭은 어데서 일어날가?

오고야말 第二世界大戰! 오고야말때가된 第二世界大戰은 果然 어데로부터 올것인가?

林元根

北國이 놓은 情熱의 歌手 金龍煥君 出世苦談

K記者

常識講座

첫봄 애기옷짓는法 任貞爀

丙子胡亂(中) 柳光烈

創作評 白鐵 — 오랜 沈滯의 生活을 단여와서 처음우리 創作界에 던지는 巨篇

創作 暗黑時代 — 光明과 暗黑의 葛藤을 取材한 文道의 新篇 朴振明 作 韓鳳鳥 畫

長篇 ... 大地 — 젊은 良心的 作家가 疲弊의 農村을 어찌 보앗는가? 崔君의 心血을 다한 近來에 大作 七十枚! 崔仁俊

谷間의 純情 張赫宙 作 鄭賢雄 畫

花心 方仁根 作 高一 畫 — 꼿꼿내 그兄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기고만, 우리의 눈물의 佳人, 금회가 또다시 걸어가는 길은 어떤길이 엇든가 이 長篇을 쓰시는 方先生도 이제야, 이야기의 정통을 풀어 헤쳣습니다

戲曲 毒婦 梁白華 — 楊貴妃와 크레오파트라라하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업지만 宋나라의 毒婦 潘金蓮을 아는 사람은 업다 이 妖婦 金蓮의 正體가 이 一篇가운데 躍如

樂壺餘韻

洪蘭波

氣俠는 七面鳥가인 金晉燮

봄의 찍거기 朴慶浩

봄의 冥想 李鍾雨

新春閑想 金正革

詩·歌 [illegible]

全國에 支局分局 販賣所 大募集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八番地

株式會社 四海公論社

電話 光 一〇七七番 / 三三四番

振替 京城九八六〇番

半年先金 六十錢 一年先金 壹圓

一年收入單百圓에 賦役負擔이二十圓

洛江沿岸住民의困窮甚極을 慶南道會(第二日)서痛論

【釜山】경상남도회제이일(二日)에 산청(山淸)선출오명선(吳明善)의원으로부터 락동강 사방공사(洛東江砂防工事)에관하야 관계지원되는면민들은 과중한부역으로 말미아마 남녀로소업시말못할 고통을 당하고잇는데 그 일례로 년수입 일백원밧게안되는 빈민에게 일개년에 약이십원에 해당하는 부역을 부과하얏스니 그 흑십합부역과중의 고통은 상상할수잇는 터이라 이런민정을 무시한 악정을 하로밥비 철폐하라고 과중한 부역제도를 통탄한후 부역부과를지원민에게만 부과하지말고 락동강류역관계적인 전체에게 부과하야 지원민의 고통의 가분이라도 덜게하라고 절규하얏다

學級增設費로 千圓喜捨

盧鎬蓮女史美擧

【巢上】한남동산상인보통학교는 교실이협착하야 년년히 칠할이상 미취학아동들이 가두에서 방황하는것을 유감이녀기든 당지로호연(盧鎬蓮)녀사는 학급증설을 위하야 현금일천원을 긔성회에 히사하엿다 이로인하야 지방유지들은 감개무량하야 더욱 증설에 노력을 앗기지안코분투중이라한다

仁川南公普校 授業料를減下

【仁川】지난구일오전십일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제이교육부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예산을의 한결과 금년도부터 제일이랑보통학교의 월사금을 사학년이하는 륙십전으로 사학년이상은 팔십전으로 감하하리라는데 시내에잇는 각사립학교에도 일제히 부당국으로부터 감하케하리라한다

仁川서大連向한 發動船行方不明

【大連】대련시로서아정(大連市露西亞町)에서 선박영업을 하는 윤욱성(尹旭成)은 지난팔십일일에 인천(仁川)에서 발동긔선두척(金比羅丸 小富丸)을 매입한후 선원십이명을태우고 대련항으로 향하엿다는데 대련까지에약사십시간이면 넉넉히 도착할수잇는데 한달이되도록 아직소식이업는바 소지한 식료품도여상이업로밧게 업섯다는데 아마도중에서 조난되것이라고한다

冬旱의繼續으로 各水組貯水池涸渇

鴻山地方年事를憂慮

【鴻山】동긔 대한발로 연하야 『보리』의 피해가만코 따라 음료수에까지 영향이심하야 대판난을 이르킨 홍산지방은 계속되는 한발로인하야 부근의 림천(林川)세도(世道)기라 수처수리조합 저수지(貯水池)에 물이 점점 감수되여 갈수긔로 이현상이 더 계속된다면 봄의못자리에 곤난을이르킬것으로 일반농가에서는 물론당국에서도 목하 전후책을 강구중이라한다

船舶往來杜絕로 薪炭價急昂騰

【群山】군산지방은 련일로 계속되다십히하는 풍설(風雪)로 인하야 선박의 왕래도두절됨으로 군산로동시장(勞働市場)은 방금 극한산을 이루우고잇다。 그리하야 군산항의 수천로동자들은 그날의 량식도 엇지못하고 헤매이고잇는 형편인데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신탄(新炭)갑시 천정을 모를만치 폭등하야 그들은 방금 이중으로 곤난을 격고잇다 한다

至急電話申請

【汶山】문산우편소에서는 체신국지령에의하야 금년도지급전화 개설신청을 오는이일부터 십륙일까지 십오일간 접수키로 되엿다 한다

三涉繁榮의關鍵 築港問題의進捗

繁華會即席에서 六千圓募集

【三陟】삼척군내 북삼번영회(三陟郡內北三繁榮會)는 수년래로북삼발전에 관하야 고심이든바 근간삼척특수의 호경긔에 자극을 바더 약진삼척을건설하고저 지난 이월이십팔일에 총회를열고 역원을개선한결과 회장에 동각(東覺)씨가 선거되고 면장김세영(金世榮)씨의 리면의 공업지대에대한 면민의각성을 촉한다는 강화가잇슨후 북삼번영에대한 토의에입하엿다

일반이고대하는 정선도로(旌善道路)가 개통되지 수년이되나 상업과로가 확장되지못하엿스며 동해안에서 굴지하는 비옥한 평야를가젓스나 농촌의 부진함은 첫재 항구(港口)가업는탓으로 운임관계와 시일이지연되여 리군고가의 금비(金肥)를 사용하게되고 따라서 판로를빼앗기게되여 선결문제로 축항(築港)을 늣기게되바 축항자금(築港資金)은 일반유지의 긔부와 당국의보조금으로 충당함에 대하야는 일반면민의성의와 유지일동의 희생적정신에 엇다고 수하엿는바 대삼(大森)씨오백원을 위시하야 박귀용(朴貴用)김재영(金在榮)송촌(松村)왕가모(王嘉模)제씨의갹산백원을 필두로 륙천여원의 거금이 모집되엿슴으로 간부일동은 의외의 호성적에감격하야 축항완성(築港完成)에 헌신적 노력을 액기지안켓다는 구든결심하에 대성항리에 폐회한후 내로는 자금모집과외로는 도당국과 본군에 교섭운비에급급중인데 일반지방주민들은 루년의 숙제가해결되것이나 다름업다하야 희성의 날을고대하고잇다한다

◇新任任員—會長東覺 副會長崔相璟 總務松村彦治 理事大森力 金在榮 監事金振九 洪鎭燮 評議員四人 顧問金世榮外三人

磽安의獨占營利는 朝鮮農業에支障

平北道會에서論難

【新義州】농가의 필수품인 류안(硫安)은 평북도내에서 소비되는 것만도 일년간 오십만포대이상인데 그가격은 전혀 일개 야구(野口)회사의 임의에 맛기어 농민의 고통이 날로평차하되 도당국자는 아모대책을 강구함이 엄다하엿슴이라하야 선천(宣川)선출 도회의원 홍치업(洪致業)씨가 지난 륙일 복도회석상에서 통론하얏는데 이류안=암모니아 비료에대한 문제는 유독 평북뿐이 아니라 전조선적문제로 일개야구회사에게 전조선의 농민이 회곤한 착취를 당하고 잇다는것은 조선의 농업장려상 여간 큰문제가 아니라고한다

地方論壇

海州光德學校 校長選 問題

海州支局 一記者

理事會에一言

一

海州修養講習所의 後身인 光德學校는 過去十餘年이란짧지안흔歷史가 흐르는동안에 여러차례의財政難에 依據한 危機를克服하고 그동안五百餘名의 卒業生을길러내고 現在에도 三百三十八名의 生徒를 收容하고잇는 海州唯一의 無産兒童의敎育機關이다

이機關은 近年에잇서서 날로늘어가는 朝鮮人의 向學熱과아울러 해마다 生徒가 激增하는社會情勢에 발을맞추어 海州有志들의 熱誠的努力에依하야 五千餘圓의 工費를드려 校舍를新築하는一方 私立學校로昇格코저 形便에잇다。

相當한富力을가진 有志十七名을 그設立者로하야 當局에 方今認可를 申請中이며 그設立者中에서 八名의理事를 選出하야 이理事會로하여금 同校를 運轉케되여 洋洋한將來를 바라보고잇다。

二

그러나 우리는 同校의 學校로서의 昇格을 慶賀하는한편 가벼운不安과 念慮를 가지게되는 것이잇스니 그는 昇格後에 잇서서의 同校의 維持問題와 關聯하야 校外에對해서는 一校를代表하며 校內에對해서는 學生과 敎職員을 統督하는 重要한 地位에잇는 校長의選任問題이다

同校의 一年間經常費豫算을보면 敎職員의 人件費를비롯하야 事務費其他等 約一千八百圓이 要하는바 生徒로부터 드리올月謝金收入豫想額 一千六百圓이잇슴으로 年一千二百圓可量이 不足되는 폭이되며 結局理事會에서 이一千餘圓의 不足額을補充해내야될

이 年一千餘圓의 不足額補充은 現理事를 中心으로한 設立者로부터의 醵金을 기대리는것 外에 다른方途가 업슴으로 그들은 大體로 共同負擔을 覺悟하고잇스나 그共同負擔이 順調로운進行을 보지못하는 境遇를 豫想하고 그維持의 萬全을期하기爲하야 理事會에서는 經濟的負擔能力이 優位에잇는 富豪中에서 校長을 選出하랴는 傾向이濃厚하다고 한다。

이러한傾向에對하야 經濟的能力이優位에 잇는富豪中에는 萬一自己가 校長으로 選出되여學校를引繼하는날에는 他의理事及設立者가 에서經濟的援助를 하지안트라도 校長個人의 獨自的能力으로써 維持하리라는것과 敎育機關을 校長一個人의 專有物로 誤解하고 「나의學校에 웨!돈을내겟느냐?」는 見解미테서 經濟的 共同負擔을 拒絶할意向으로 말미암아 自己單獨負擔이 되지안흘가하는 不安미테서 校長되기를 은연사양하야 校長選任問題가 擡頭되지 一個月이지난 오늘에잇서서 아직그決定을 짓지못하고 混亂狀態에잇다한다。

三

우리는以上의事實에서 먼저그의人格은 一校의縮圖요 學風의標本으로서 一校의精神을 左右하는校長을 一校를代表하며 一校를統督해나갈만한 人格的要素를가진 德望家란 그點에 重點을두고 求하지안코 그보다도 經濟的負擔能力의 優位에 重點을두고 校長을選任하라는 理事會의 態度에對하야 實로遺憾되게생각한다

우리海州地方에 局限하지말고 視野를널녀 現下朝鮮의 敎育實情을보면 間或 校主或은 校長의人選은 本人의德望또는 人格보다도 그의經濟的地盤을 爲主하고 血統的地方的 派閥的情實에 흐르는弊端이 업는것도아니나 그럿타고해서 우리는 이不幸한事態를 踏襲할것인가!—即우리는 經濟的負擔能力이 잇다고해서 一校의首腦인 校長의 選任에잇서서 人格第一主義를버리고 道德上瑕疵잇는手段方法으로서 財物을貪取하는者나 또는人倫에 違約하는者等을 가리지안허야할것인가?

아니다! 下流의맑기를 바라는者는 上流를맑게해야 되는것이니 敎育者 터구나 一校의首腦인 校長은 바다시 智德兼備로 自他가 共認할만한 人格者로서 學生의尊崇을바드며 敎職員의信任을 바들만한 德望家를選出하여야할것이다。

四

다음에우리는 敎育機關의公器性을 無視한 一部理事의見解와 共働協力精神의 缺如를 發見하고 啞然失笑하지안흘수업다 甲이라는 財産家가 校長으로 就任되는날 他의理事와 設立者가 經濟的援助를 繼續하지안흘것을 甲의不安은 一校理事의 어느程度까지의心境을 反影한것으로서 우리는 여긔에서 學校를 社會의公器로보지안코 校長一個의 私有物로본 認識錯覺을 看破할수잇다。

도홀닌자가 國家이든 個人이든가를勿論하고 敎育機關은 社會의公器요 一個人의私有物이 絶對로아니다 萬若 이一點에對하야 조곰이라도 疑心을가지는者가잇다면 우리는 그의智的批判力을 疑心할수밧게업스며 經費負擔에 憑勢하야 敎育機關을 맛치個人의私有物로 籠絡하는者이다면 이는實로 敎育者의 神聖을冒瀆하는 것이라고볼수밧게 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理事會가 良心的인 自己批判과 光輝잇는大衆的批判을 기다려 敎育機關의公器性에對한 再認識으로부터 被敎育者를 感化식길만한 人格者를 하로밧비 校長으로 마저드리는同時 오로지共働協同精神을 發揮하야 富力의差異의 限이업시各各應分의 共同負擔으로서 우리들의 빗나는光德으로 하여금 一層呼吸을 크게하기를바라는바이다

金浦地方도물饑饉

全洞內의飮料井全部涸渇로 八十餘戶住民極恐慌

【金浦】작년가을이후로 계속적한발로 인하야 군내어느곳을물론하고 식수(食水)부족으로 막대한 곤난중이라는데 그중 우심한곳은 군내면서변리(郡內面西邊里)팔십여호부락에는 오개소의 우물이 전부고갈되고 한우물만 야간의물이잇스나 팔십여호에서 매일그곳으로만 모혀들어 물한통이를엇자면 몃시간동안을 기다리는상태임으로 밤중에나 새벽에도 수십명식 연락부절하든바 요사이는 그우물도 말나서 집집마다 식수부족으로 대소동중이라고한다

奇特한學生

【仁川】거륙한학생=인천 시내 률목리(栗木里)사십여번지 림명근(林明根)씨장남 영택(英澤)(一七)군이 지난륙일 우각리(牛角里)로상에서 현금륙십원을습득하야 그길로 우 … 가지고와서 파대금전부를 분실한것이다 이에 전긔학생의 특지에감동하야 화비로 현금일원을지청하얏다한다

新義州에大火災

損害額이約八千圓

【新義州】저난 구일오전륙시이십분 부내 진사정(眞砂町)이정목 정종화(鄭宗和)방에서 불이이러나 동가를 전소(全燒)식이고 동칠시반 진화되엿는데 원인은 목하 조사중이며 손해는 약팔천원에 달한다고 한다

生活難으로言爭 老夫婦가飮毒

【靈岩】륙순(六旬)이 다되도록슬하에 자식하나 업고 로파가생활난으로 부부싸홈이 생기자세상을 비관하고 그만죽엄으로암길을 해결한 사실이 령암군 덕하에 생겻다 그는 령암군 덕진면 덕진리(德津里)사백십사번지에 거주하는 김래원(金泰元)(六○)의처 김여무(金汝茂)(六○)라로파로 십삼년전에 전긔김래원과 부부로만나 동거하여왓다는데 그동안에 남편은 한푼의생산도업시 로파의젓장사로근근히 연명하여오든중 지난사일오전열한시경에 생활난으로인하여 부부간싸홈이생기자 피차간 감정에 쏟발되여 분한을참지못한 전긔로파는 세상을비관한남어지 다량의양잿물을 먹게되자 이를알게된 남편인김래원도 역시 로파먹은양잿물그릇을빼아서가지고 자긔역시 죽는것이마땅하다고먹어버렷다는바 전긔로파는 응독하지 약상성효에 무참히도절명되고 마럿다하며 남편은부한신중에잇다는바 회생될여망이 별로 업다고한다

躍進淸津港人口 五萬名을突破!

昨年末現在의調査

【淸津】날로 발전과정에잇는국제도시인 청진은 그인구가 또한 비약적으로 격증되야 작년十二월말일 현재로 부당국조사에 의하면 실로오만팔천오명에 달하는바 이를소화구년도에 비하면 칠천팔백육십사명이 격증되얏는바 작년도인구별을 들어보면 다음과가다고한다

	戶數	人口
朝鮮人	八、四四四	三六、七五五
日本內地人	三、四四五	一○、三三三
外國人	三六一	八六七

姜五奉氏特志

【北鎭】운산북진에잇는 사립광동학교(私立廣東學校)는 군내유일의 무산아동교육을 위주한학교로 근년재정이정리되는등 상당한 륭성(隆盛)을 보는듯하기는하나 순전히 빈약한 우리손으로생기고 우리힘으로 유지되는것만큼 아직교내의시설이 미약한형편에잇는데 이에 당지시민의원장(市民醫院長)인 의사강오봉(醫師姜五峰)씨는 아동의교재로 리용하여달나고 오-케-교육레코-드일조(一組)를 긔증하여 학교당국자들은 물론이요 일반시민으로부터 씨의정성에 자못 칭송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不正事件綻露? 面會計員取調

【金海】경남김해군내에 주지못할 한사건으로 일반의이목을 번거럽게하든 무릉면사무소원 부정사건 진불리취급사무원 부정사실이 탄로되지 멧날이안되는 오날에 또 면회계원의 부정사실이 일어낫다 지난사일 김해경찰서에서는 비밀리에 동군대저면회계원(大渚面會計員) 최상복(崔相福)(二七)(假名)을 검거취조중인데 아직 비밀에부침으로자세히알수업스나 모부정사건이 탄로된모양이라한다

府民期待의焦點인 北村의大幹線道

畢竟明年으로延期

【元山】원산부민의 기대는기대든 북부의 보조를 밧지안코는 기룡것고 갈마중에잇는 유마(有馬)에 전기 십이메돌도로의 준비공사로 우각리(牛角里)정미소앞호로부터 제일공보까지의 예정도로는 북촌의대간선이라 유일한희망을갓게하얏스나 총공비가 약사십마원가량에 달하게되야 총독부의 보조를 밧지안코는 기공키가 어려울뿐아니라 금년도에 오마원 공비로 하수구(下水溝)를 계수한다는데 적어도 명년도에만은 기공되리라한다

住民의多年懸案 古寧公普開校

【興南】함남영흥군 고녕공립보통학교는 소화구년도부터설치긔성회를 조직하고 이래 남산을 격거오든바 수일전에 긔성역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사월일일부터 림시 사립영명학교(私立永明學校)교사를 빌어 개교키로 결정되엿다는데 리민(里民)간에는 위치문제가 자연되여 모리에서는 긔지로 칠천사백륙십원평을 무상긔부하겟다고 국당국에 진정까지한일이잇다는바 각 리는 모다 자긔부근에 위치를 끌어 올 계획으로 알암리에 위치쟁탈전을 개시하고잇는중이라고한다

女子賭博團檢擧

【義州】의주경찰서에서는 지난륙일 오후십시경에 의주읍 동부동 최모(崔某)의 집에서 장명숙(張明淑)(假名)리소자(李昭子)(假名)외 십여명의 부녀가 십전내지일원의 금전을걸고 윳노리하는것을 검거하야 불구속취조를 한다는바 그중에는 량가의부녀도 만홈뿐더러 상당자도 적지안타하야 당국에서는 엄중처벌을 하리라한다

回甲宴廢止하고 面內極貧民救濟

保寧李準鎬氏盛擧

【大川】충남보령군대천지방에서 빈한한사람의 간구한 사정을항상잘알어주는리준호(李準鎬)씨는 금년에 륙십일세의 환갑을맛게되엿는데 자질들은 남부럽지안이할만큼 회갑연을베풀고자 함에 씨는 그것을 절대중지시키고 연회비일천여백원으로 출충에 먹을것이엽서 굼주리고잇는면내극빈자 일백사십호에 백미일두식분배하여달라는것을 대천면(大川面)에 의뢰하엿슬뿐만아니라 씨의정미공장(精米工場)인부 이십호에 대하여도 역시백미일두식을 분급하엿다하며 또현금으로는 좌긔와가티 공공사회단체로 전달하엿다는데 일반은 이에대한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一、尋常小學校에金五十圓
一、幼稚園에 金四十圓
一、大川振興青年團에 五圓
一、親戚三十戶에 金一封式
一、大川公普校에金六十圓

◇…寫眞은李準鎬氏

殺人强盜

昌城郡青山面에

【泰川】평북창성군 봉동(昌城郡青山面鶴峰洞)윤용선(尹用善)의집에는 지난 륙일 오후다섯시경에 엇던청년한명이 나타나서 윤용선의처(六○)를 협박하고 소판돈을 내여노라고 강요하다가 방망이로 노파를 난타하야 즉사케한후 현금일원과 모필한자루를 어더가지고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소관주재소에서는 비상선을 느리고 범인체포에 로력중이라더라

地方人事

◆李澤龍氏(東光堂藥房主)開業人事次 本報雲津支局來訪

朝光 三月號

實益과趣味와各方面의記事와特別畫報等滿載

號마다絕版、또再版도絕版되는「朝光」은 三月號의 內容을봐야 眞價를알수잇스니 果然誌界의 先驅者

斷然 朝鮮雜誌王

發賣中

朝光三月號…內容目次
表紙……安夕影
口繪═舊道의現代色…春映畫帖 ═男女專門學校卒業生寫眞帖
내가가진貴重品 高裕燮 安在鴻 金晟鎭 權相老 李一 高鳳京 金珖燮 梁柱東 李泰俊 金東煥 李瑄根 梁柱三 朴花城 金東… 河 李淑鍾
時事·論文特輯
日本의對中三原則과極東의三主義……徐椿
岡田內閣의前途……成尙勳
極東政局의危機와外蒙과北平問題……李元坤
重要產業統制法과朝鮮의實施問題……朴用來
株式과投資……李健赫
心·兩·雜·章「詩心不滅」……石松
◇放浪二十年生涯半生記「二十萬里를도라선」……李克魯
◇서울거리의東西南北 一問一答記……咸一步
◇李朱律의最近生活……
人生과科學
手術海에나타난人間悲劇……金晟鎭
因果律의再吟味……都相祿
H₂O……李在
病室風景……鄭槿陽
史上美人傳 楚霸王의愛姬虞美人……靑吾
잃어버린民俗 沙鉢通文……申鼎言
朝鮮風雲兒傳 三日天下李适……史外史人
趣味史話 朝鮮姓氏淵源考……車相瓚
校門을나서는智識女性들에게……金活蘭·任永信·金美理士·宋今璇·任貞爀·徐恩淑
家庭讀本
女學敎員生活十五年……金允經
卒業生과社會……李萬珪
學校選擇의原理……金興濟
新築落成한京城保育學校……一記者
春季兒童服……任貞爀
新春化粧法……鄭花靜
美人되는條件……OKO
家計簿……宋玉
小兒養育法……張文卿
童謠……尹福鎭
◎文化問答室◎動鈴僧의由來……權相老
全朝鮮男女專門學校卒業生名簿
日本內地各高等學府朝鮮人卒業生名簿
◆隨筆▼
김치와八道의호래비……金文輯
奇異한因緣……鄭寅燮
運命觀의序曲……李一
理想과現實……吳貞任
서울이야기……
◎映畫欄◎
朝鮮映畫界스타─文藝峰訪問記……一記者
今春問題映畫미모자館解說……一記者
漫·文·漫·畫·모던沈淸傳……金熊超
連·續·漫·畫·全大雄……崔永秀
笑話
女性界映畫界其他消息
☆實☆話☆
홍색마리에게愛人을빼기고……吳유라
적은箱子에넘으려브레터……金順蓮
文學時論·美의時代性과文學의運命……金晉燮
全性……金韓容
私信公開·李克魯氏에게……尹檀崖
朝鮮日報記者試驗考查後感……李邁
者로서의一言……金炯元
今月의詩集
香……春園
媒……金尙鎔
나는노래를읽은빼국새……金岡
零下25度春色……朴月灘
希望과絶望……朴龍喆
연자ㅅ간……白石
傑作小說特輯
中篇 賭博……李箕永
短篇 늙은나무아래서……宋影
中篇 眼鏡……朴泰遠
短篇 故鄕……安懷南
長篇 海峽……咸大勳
春季七題 二色套文集
시골……李殷相
내……金珖燮
木……李泰俊
배……金起林
日……李源朝
黃……白石
西……李箱
봄……咸大勳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朝鮮日報社出版部

卽速注文하라! 定價三十錢 地方郵稅本社負擔